

진실한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1티모 1,5)

- 믿음의 사도 십자가의 길

심홍보 신부

진실한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1티모 1,5)

- 믿음의 사도 십자가의 길

머리말	3
십자가의 길 14처	5
십자가의 길 0 가톨릭 기도서	6
십자가의 길 1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2테살 1,2)	13
십자가의 길 2 “진실한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1티모 1,5)	25
십자가의 길 3 “복음을 위한 고난”(2티모 1,8)	36
십자가의 길 4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느님의 은총”(티토 2,11)	47
십자가의 길 5 “사랑하는 형제”(필레 1,16)	59

십자가의 길을 시작하며

지난 2014년 사순절에는 성가정을 주제로 십자가의 길을 썼습니다. 재의 수요일 다음 금요일과 성금요일에는 가톨릭 기도서의 십자가의 길을 바쳤고, 사순 제1주간에서 사순 제5주간 금요일까지,

첫 주간은 ‘일반 개인 차원의 주님을 향한 영성의 길목에서’,

둘째 주간은 ‘부모의 은덕을 기리며’,

셋째 주간은 ‘부부의 정을 기리며’,

넷째 주간은 ‘자녀의 꿈을 이루며’,

다섯째 주간은 ‘교회 공동체 차원의 사도직 활동의 여정에서’라는 주제로 성가정 십자가의 길을 써서 바쳤습니다.

사순 시기를 마친 다음 곧바로 2015년에 바칠 십자가의 길의 주제를 몇 개월 동안 계속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10월 교구 사제피정에 들어가 기도를 하면서 불현듯 이번에는 사 복음과 사도행전의 흐름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쓰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첫 주간은 ‘예수님의 생애를 그린 마르코 복음의 하느님 나라’를,

둘째 주간은 ‘교회를 주제로 묘사한 마태오 복음의 하늘 나라’를,

셋째 주간은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루카 복음의 하느님 나라’를,

넷째 주간은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요한 복음의 하느님 나라’를,

다섯째 주간은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역사 안에서 하느님 나라를 구현하는 초대 교회 공동체의 사도행전’의 내용을 중심으로 십자가의 길을 썼습니다.

2016년 제주 엠마오 연수를 다녀오면서 한 해 쉬다가, 수색 예수성심 성당에 부임하며 위의 두 십자가의 길을 반복하면서, 2019년 자연스레 바오로 사도의 서간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의 선교를 위하여 헌신하신 바오로 사도의 열정과 헌신이 ‘믿음 희망 사랑’이라는 주제를 통해 우리를 주님과 교회로 이끌어줍니다.

첫 주간은 ‘로마서의 희망 십자가의 길’을,

둘째 주간은 ‘코린토 전서의 믿음 십자가의 길’을,

셋째 주간은 ‘코린토 전서의 사랑 십자가의 길’을,

넷째 주간은 ‘코린토 후서의 위로 십자가의 길’을,

다섯째 주간은 ‘갈라티아서의 찬미와 영광 십자가의 길’을 썼습니다.

2020년에는 사도 성 바오로의 서간을 따라 ‘평화 위로 감사’라는 주제로 십자가의 길을 그려보았습니다.

첫 주간은 ‘에페소서의 평화 십자가의 길’을,
둘째 주간은 ‘필리피서의 힘과 용기 십자가의 길’을,
셋째 주간은 ‘필리피서의 위로 십자가의 길’을,
넷째 주간은 ‘콜로새서의 용서 십자가의 길’을,
다섯째 주간은 ‘테살로니카 전서의 감사 십자가의 길’을 썼습니다.

2021년에는 전년도에 이어 사도 성 바오로의 서간을 따라 ‘믿음의 사도’라는 주제로 십자가의 길을 그려봅니다.

첫 주간은 ‘테살로니카 후서의 은총과 평화 십자가의 길’을,
둘째 주간은 ‘티모테오 전서의 믿음의 사도 십자가의 길’을,
셋째 주간은 ‘티모테오 후서의 고난 십자가의 길’을,
넷째 주간은 ‘티토서의 은총 십자가의 길’을,
다섯째 주간은 ‘필레몬서의 형제 십자가의 길’을 썼습니다.

2021년 사순절의 문턱에서
수색 예수성심 성당 주임사제
심홍보 베드로 신부

십자가의 길

✠ 주 예수님,

- ◎ 저희를 위하여 온갖 수난을 겪으신 주님의 사랑을 목상하며
성모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하나이다.
저희에게 죄를 뉘우치고 주님의 수난을 함께 나눌 마음을 주시어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며
성직자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모든 죄인이 회개하도록 은혜를 내려주소서.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 1처 예수님께서서 사형 선고 받으심을 목상합시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제 2처 예수님께서서 십자가 지심을 목상합시다.

제 3처 예수님께서서 기력이 떨어져 넘어지심을 목상합시다.

제 4처 예수님께서서 성모님을 만나심을 목상합시다.

제 5처 시몬이 예수님을 도와 십자가 짐을 목상합시다.

제 6처 베로니카, 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림을 목상합시다.

제 7처 기력이 다하신 예수님께서서 두 번째 넘어지심을 목상합시다.

제 8처 예수님께서서 예루살렘 부인들을 위로하심을 목상합시다.

제 9처 예수님께서서 세 번째 넘어지심을 목상합시다.

제10처 예수님께서서 옷 벗김 당하심을 목상합시다.

제11처 예수님께서서 십자가에 못박히심을 목상합시다.

제12처 예수님께서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을 목상합시다.

제13처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림을 목상합시다.

제14처 예수님께서서 무덤에 묻히심을 목상합시다.

잠깐 목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십자가의 길

- 가톨릭 기도서 -

✠ 주 예수님,

- ◎ 저희를 위하여 온갖 수난을 겪으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성모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하나이다.
저희에게 죄를 뉘우치고 주님의 수난을 함께 나눌 마음을 주시어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며
성직자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모든 죄인이 회개하도록 은혜를 내려주소서.

(제1처로 가며)

-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처 예수님께서서 사형 선고 받으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구세주 예수님,

저희를 위하여

아무런 죄도 없이 극심한 모욕과 사형선고를 받으셨으니
죄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영원한 벌에서
저희를 구원주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2처로 가며)

-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2처 예수님께서서 십자가 지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구세주 예수님,
저희를 사랑하신 까닭에
이 무거운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가셨으니
저희도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십자가를
기꺼이 지게 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3처로 가며)

-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 제3처 예수님께서 기력이 떨어져 넘어지심을 묵상합니다.**
- ☞ 주님께서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구세주 예수님,
무거운 십자가에 눌러 넘어지시는
고통과 모욕을 당하셨으니
저희가 언제나 주님을 변함없이 섬기며
죄에 떨어지는 일이 없게 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4처로 가며)

-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 제4처 예수님께서 성모님을 만나심을 묵상합니다.**
- ☞ 주님께서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구세주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님,

괴로운 십자가의 길에서 서로 만나시어
사무치는 아픔을 겪으셨으니
저희 마음에 사랑을 복돋아 주시어
주님과 성모님을 사랑하는 데에
장애 되는 모든 것을 물리치게 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5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5처 시몬이 예수님을 도와 십자가 짐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구세주 예수님,

시몬이 주님을 도와 십자가를 졌으니
저희도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십자가를
날마다 기꺼이 지고 가게 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6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6처 베로니카, 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림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구세주 예수님,

나쁜 무리가 주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님을 업신여기며 모욕하였듯이
저희도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의 얼굴을 더럽히는 것이오니
통회의 눈물로
주님의 얼굴을 씻어드리게 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7처로 가며)

-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 제7처 기력이 다하신 예수님께서서 두 번째 넘어지심을 묵상합니다.**
-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구세주 예수님,
저희를 위하여 두 번째 넘어지시는 고욕을 당하셨으니
주님을 한결같이 섬기지 못하고
다시 죄에 떨어져
주님의 사랑을 저버리는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다시는 세속과 육신의 간교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8처로 가며)

-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 제8처 예수님께서서 예루살렘 부인들을 위로하심을 묵상합니다.**
-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구세주 예수님,
저희 죄로 상처를 받으시고
온몸이 헤어지셨으니
저희에게 풍부한 은총을 내리시어

지난날에 지은 모든 죄를 뉘우치며
주님의 품을 찾아 들게 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9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9처 예수님께서 세 번째 넘어지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구세주 예수님,

무거운 저희 죄에 눌리시어

세 번이나 무참히 넘어지셨으니

그 수난의 공로를 저희에게 나누어 주시어

저희가 이미 지은 죄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0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0처 예수님께서 옷 벗김 당하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구세주 예수님,

병사들이 난폭하게 주님의 옷을 벗길 때에

살이 묻어나는 극도의 고통을 당하셨으며

죄수로 군중 앞에 서시는 모욕을 당하셨으니

저희가 모든 죄를 벗어버리게 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1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1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구세주 예수님,

알몸으로 십자가에 못박혀 달리셨으니

저희도 주님과 같이

몸과 마음을 희생제물로 봉헌하게 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2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2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구세주 예수님,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셨으니

저희도 십자가에 못박혀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구세주 예수님,

혹시라도 영원히 주님을 떠날 불행이 저희에게 닥칠양이면

차라리 지금 주님과 함께 죽는 행복을 내려주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3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3처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림을 목상합니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구세주 예수님,

주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 품에 안으신

성모님의 전구를 들으시어

저희도 성모님 품안에서

효성스러운 자녀로 살다가

마침내 그 품안에서 죽게 하소서.

잠깐 목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4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4처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심을 목상합니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돌무덤에 묻히신 구세주 예수님,

저희가 주님의 죽음을 생각하며

언제나 깨끗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사랑의 성체를 받아 모시게 하소서.

잠깐 목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2테살 1,2)

- 테살로니카 후서의 은총과 평화 십자가의 길 -

✠ 주 예수님,

- ◎ 저희를 위하여 온갖 수난을 겪으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성모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하나이다.
저희에게 죄를 뉘우치고 주님의 수난을 함께 나눌 마음을 주시어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며
성직자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모든 죄인이 회개하도록 은혜를 내려주소서.

(제1처로 가며)

-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처 예수님께서서 사형 선고 받으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빕니다.”(2테살 1,2)**

2020년 설날, 이웃 나라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절대 외출 금지, 절대 외식 금지!”

다른 나라 이야기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도 못 되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덮쳤습니다.

예수님의 사형선고 소식도 마치

이천 년 전 남의 나라의 한 장면만 같았건만,

이제 우리 마음속에 다가옵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부족하고 나약한 저희를 버려두지 마시고

통제할 수 없는 어둠의 세력에서 건져주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2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2처 예수님께서서 십자가 지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때문에
늘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자라나고
저마다 서로에게 베푸는 여러분 모두의 사랑이
더욱더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2테살 1,3)

저만 깨끗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저만 안 걸리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 혼자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전염병의 창궐이라는 상황에 처하고 나니
우리는 천상 운명공동체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나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듯

병에 걸려 투병하고 있었습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부족하고 나약한 저희를 버려두지 마시고

통제할 수 없는 어둠의 세력에서 건져주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3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3처 예수님께서서 기력이 떨어져 넘어지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여러분이 그 모든 박해와 환난을 겪으면서도

보여 준 인내와 믿음 때문에,

하느님의 여러 교회에서 여러분을 자랑합니다.”(2테살 1,4)

전염의 속도가 더욱 거세지자 어둠이 깊어지고

주 예수님의 수난을 기리기 위해 사순절을 시작하는

재의 수요일, 재의 예식마저 가질 수 없었고

신자들은 아예 미사조차 참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순교와 독재의 시절에도 끊이지 않던

믿는 이들의 대표적인 신앙 행위가 중단되었습니다.

주님의 힘으로 살던 우리도 쓰러졌습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부족하고 나약한 저희를 버려두지 마시고

통제할 수 없는 어둠의 세력에서 건져주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4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4처 예수님께서 성모님을 만나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하느님의 의로운 심판의 징표로,

여러분이 하느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은 하느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2테살 1,5)

확진자들이 음압 병동에 수용되어 생사를 넘나들며,

외롭고 힘겨운 투병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접촉자들과 발병 대기자들이 자가격리에 들어갑니다.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진 아들을 바라보는 성모님의 얼굴처럼
많은 이들을 대신하여 병마와 투쟁하는 환우들을
바라보는 믿는 이들의 가슴이 미어집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부족하고 나약한 저희를 버려두지 마시고
통제할 수 없는 어둠의 세력에서 건져주시고 구하소서.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5처로 가며)

-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 제5처 시몬이 예수님을 도와 십자가 짐을 묵상합시다.**
-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정녕 의로우시어,
여러분에게 환난을 겪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겪는 여러분에게는
우리와 같이 안식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2테살 1,6-7)
질병관리담당자들을 비롯한 많은 공무원들과 사회봉사자들이
확산되는 병마의 전염 속도와 범위를 줄이려고 사투를 벌이며
가능하면 한 사람도 누락되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합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부족하고 나약한 저희를 버려두지 마시고
통제할 수 없는 어둠의 세력에서 건져주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6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6처 베로니카, 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림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그때에 그분께서는 타오르는 불에 휩싸여 오시어,

하느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벌을 주실 것입니다.”(2테살 1,8)

전 세계 수많은 의료진과 봉사자들이

매일, 매순간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습니다.

환우들의 병세가 깊어지면 함께 울고 아파하며

환우들에게서 차도가 보이면 내 일처럼 안도하며

이십사 시간 환우들 곁에서 쉬지도 못한 채

치료 중 감염되어 목숨을 바치기까지 합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부족하고 나약한 저희를 버려두지 마시고

통제할 수 없는 어둠의 세력에서 건져주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7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7처 기력이 다하신 예수님께서 두 번째 넘어지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우리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당신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선의와 믿음의 행위를

당신 힘으로 완성해 주시기를 빕니다.”(2테살 1,11)

초중고등부 개학 예정일에 맞춰 신자들과 함께하는 미사 재개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비롯하여 나름 전염병 방지에 동참하여, 사제들과 수도자들과 직원들만 미사를 봉헌하면서 성당좌석에 1m이상의 간격으로 스티커를 붙이고 신자들이 오면 쓸 비접촉 레이저 체온계와 손세정제와 여벌 마스크를 준비하며 그나마 주님수난주일에라도 판공성사를 보며 부활을 준비하고자 했던만 병마는 이마저 비웃듯이 기승을 부리며 무산시켜 버립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부족하고 나약한 저희를 버려두지 마시고 통제할 수 없는 어둠의 세력에서 건져주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8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8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부인들을 위로하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우리 하느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에 따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고,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2테살 1,12)

병상에서는 젊은이들에게 산소마스크를 양보하며 희생하고

코로나19 전염방지를 위한 각종 기부가 늘어나며

민간차원의 마스크와 손세정제 만들기 등의

사회 안팎의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류사회를 위협하는 바이러스는 잠잠해질 줄 모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병마의 점령지가 늘어만 가고 있는 순간에

점점 나 하나만이라도 걸리지 말아야 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부족하고 나약한 저희를 버려두지 마시고

통제할 수 없는 어둠의 세력에서 건져주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9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9처 예수님께서 세 번째 넘어지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누가 주님의 날이 이미 왔다고 말하더라도,
쉽사리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누가 무슨 수를 쓰든 여러분은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2테살 2,2-3)

질병관리담당과 의료진, 봉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병마는 마치 빈틈을 노리고 공격해 오듯 파고 들어와
그 기세를 수그러뜨리지 않고 퍼져나갑니다.

이제나저제나 하며, 수그러지기를 기도하고 기대했건만
막상 부활절마저 지낼 수 없게 되니 허탈합니다.

진정 영과 진리로 예배할 시기인가 봅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부족하고 나약한 저희를 버려두지 마시고

통제할 수 없는 어둠의 세력에서 건져주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0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0처 예수님께서 옷 벗김 당하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때문에 늘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여 구원하시려고,

여러분을 첫 열매로 선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2테살 2,13)

환우들뿐만 아니라, 감염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자발적 자가격리 등의 활동축소로 관계망이 위축되어

너나 할 것 없이 먹고살기가 힘겨워졌습니다.

투병은 비단 전염병이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 각 분야에

파급효과를 가져오며 사람들의 생을 위협합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부족하고 나약한 저희를 버려두지 마시고

통제할 수 없는 어둠의 세력에서 건져주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1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1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은총으로

영원한 격려와 좋은 희망을 주신 하느님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여러분의 힘을 북돋우시어

온갖 좋은 일과 좋은 말을 하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2테살 2,16-17)

각계각층의 많은 관계자의 피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디선가 상대적으로 제외되고 소외되는 이들이 생겨납니다.

외국인 노동자들, 가난한 이들, 불법체류자들,

그나마 최소한으로, 최저치로 정한 기준과 자격에도 미달하는 이들

그 누구도 헤아리거나 돌보지 못하는 이들이
우리의 무관심과 이해관계 속에서 또 다른 희생자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주님의 뒤를 잇고 있습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부족하고 나약한 저희를 버려두지 마시고
통제할 수 없는 어둠의 세력에서 건져주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2처로 가며)

-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 제12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을 묵상합시다.**
-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주님은 성실하신 분이시므로,

여러분의 힘을 복돋우시고

여러분을 악에서 지켜 주실 것입니다.”(2테살 3,3)

전 세계에서 바이러스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위험으로
많은 분이 아버지 하느님께 돌아가십니다.

주님과 함께 되돌아가는 이들을 자비로이 굽어보시어

생전에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품 안에서 성인들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해주소서.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부족하고 나약한 저희를 버려두지 마시고

통제할 수 없는 어둠의 세력에서 건져주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3처로 가며)

-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3처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림을 목상합시다.
-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이끄시어,
하느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이르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2테살 3,5)

수많은 사람이 쓰러져 갔습니다.

주 하느님의 거룩하심과 엄위하심과 전능하심을 믿고

그 하느님께서 빛어 만들어 주신

우리 인간의 존엄성과 고귀함을 외치던 우리가

이렇게 하찮고 어처구니 없게 쓰레기 더미처럼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로 생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따로따로 귀하게 만드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를 하루 빨리 구하러 오시옵소서.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부족하고 나약한 저희를 버려두지 마시고

통제할 수 없는 어둠의 세력에서 건져주시고 구하소서.

잠깐 목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4처로 가며)

-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4처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심을 목상합시다.
-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시하고 권고합니다.

묵묵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벌어들여 하십시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낙심하지 말고

계속 좋은 일을 하십시오.”(2테살 3,12-13)

주님, 사순시기는 끝나가지만,
아직도 저희는 바이러스와 어둠 속에 갇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겨서,
어떤 때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잘못 판단해서,
어떤 때는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인 줄 뻔히 알면서도
악과 손잡고 나를 죄악의 노예로 만들고,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사회에 죄악을 더해갑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부족하고 나약한 저희를 버려두지 마시고
통제할 수 없는 어둠의 세력에서 건져주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5처 제대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5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평화의 주님께서 친히 온갖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언제나 평화를 내려 주시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계시기를 빕니다.”(2테살 3,16)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우리가 헤쳐나갈 수 없다고 여기는 재난과 어려움 속에서,
낙담하고 지치고 쓰러진 저희를 자비로이 굽어보소서.

이 아픔과 어려움에 빠져 신음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죽임을 당하시고도 끝나지 않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다시 오실 주님,

주님 밖에는 저희를 구해주실 분이 없나이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부족하고 나약한 저희를 버려두지 마시고
통제할 수 없는 어둠의 세력에서 건져주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진실한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1티모 1,5)

- 티모테오 전서의 믿음의 사도 십자가의 길

✠ 주 예수님,

- ◎ 저희를 위하여 온갖 수난을 겪으신 주님의 사랑을 목상하며 성모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하나이다. 저희에게 죄를 뉘우치고 주님의 수난을 함께 나눌 마음을 주시어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며 성직자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모든 죄인이 회개하도록 은혜를 내려주소서.

(제1처로 가며)

-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처 예수님께서서 사형 선고 받으심을 목상합니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티모테오에게 말합니다.

“하느님 아버지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은총과 자비와 평화가 내리기를 빕니다.”(1티모 1,2)

주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은총과 자비와 평화를 비롯하여 좋은 것과 귀한 것만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배은망덕하게도 주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보내주신 예수님을 저버리고 맙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목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2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2처 예수님께서서 십자가 지심을 목상합니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티모테오에게 말합니다.

“신화나 끝없는 족보에 정신을 팔지 말라고 지시하십시오.

그러한 것들은 믿음을 통하여 알려지는 하느님의 계획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역측만 불러일으킵니다.”(1티모 1,4)

주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좋은 길을 제시해 주셨지만,

우리는 주어진 것에 감사드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걸으려고 하기 보다는

어디 더 좋은 것이 없을까 찾아 헤매고

어디 더 간단하고 편한 길이 없을까 하는 허황된 유혹에 빠져

주님과의 거리만 벌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무게만 더 늘리고 있습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목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3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3처 예수님께서서 기력이 떨어져 넘어지심을 목상합니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티모테오에게 말합니다.

“깨끗한 마음과 바른 양심과

진실한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1티모 1,5)

주 예수님은 우리가 행어나 다칠세라,
혹여 악마에게 뺏길세라
악의 세력에 휘둘릴까봐 노심초사하시느라
진이 다 빠지도록 우리를 위해 헌신하시다가
마침내 기력이 떨어져 넘어지십니다.
주님, 마음뿐인 저희의 사랑이지만 어여뻐 보아주소서.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4처로 가며)

-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 제4처 예수님께서 성모님을 만나심을 묵상합니다.**
- ☞ 주님께서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티모테오에게 말합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모르고 한 일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1티모 1,13)
성모님은 어머니이시기에 우리를 늘 감싸주십니다.
“아이가 아는 것이 없어서.”
“아이가 아직 철이 없어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어루만져 주십니다.
자비로운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성모님께 의지하여 청하오니
주님,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5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5처 시몬이 예수님을 도와 십자가 짐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티모테오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당신의 한없는 인내로 대해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당신을 믿게 될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삼고자 하신 것입니다.”(1티모 1,16)

사도들과 성인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르며,

뒤늦게 주님을 따르는 우리 약한 이들을 돌봐주십니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졌듯이

우리도 가족과 친지와 이웃과 사회의 십자가를 짊어집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6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6처 베로니카, 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림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티모테오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 증거의 선포자와 사도로,

다른 민족들에게 믿음과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로 임명을 받았습시다.”(1티모 2,7)

베로니카 성녀는 수건으로 예수님을 닦았습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닦으렵니다.

지워지지 않는 영원한 표징으로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가슴 깊이 새기렵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7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7처 기력이 다하신 예수님께서서 두 번째 넘어지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티모테오에게 말합니다.

“**높이 땀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이 아니라,**

하느님을 공경한다고 고백하는 여자답게

선행으로 치장하십시오.”(1티모 2,9-10)

우리는 한 평생 우리 자신을 갈고 닦습니다.

사람들이 선호하고 기준으로 삼는 외모를 먼저 꾸밈니다.

하지만, 내가 못생겨서가 아니라

주 하느님께서 빛어 만들어 주신 내 몸으로

내가 진정 그리워하고 달성하고 싶은

인격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렵니다.

그리하여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희생하신

주님의 영광이 비친한 나를 통해

이 땅에 드러나기를 간구합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8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8처 예수님께서서 예루살렘 부인들을 위로하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티모테오에게 말합니다.

“품위가 있어야 하고,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으며,
술에 빠져서도 안 되고 부정한 이익을 탐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깨끗한 양심으로

믿음의 신비를 간직한 사람이어야 합니다.”(1티모 3,8-9)

누구를 위한 삶인지 자문해 봅니다.

누구를 위한 신앙인지 자문해 봅니다.

나의 노력과 봉사와 헌신이

나의 인격적 완성과

함께 사는 기쁨을 위한 행복임을 되새겨봅니다.

주님의 은총과 배려에 감사드리며,.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9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9처 예수님께서 세 번째 넘어지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티모테오에게 말합니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다 좋은 것으로,

감사히 받기만 하면 거부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1티모 4,4)

마이동풍, 우이독경이란 말이 우스울 정도로

우리의 탐욕을 청하기만 하고

그중 하나라도 이루어 주시기만 하면,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주님 곁을, 주님의 마음을 떠나버릴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어요?!

비록 저희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지만

주님께 되돌아와 주님께 미소를 안겨드릴 때까지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0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0처 예수님께서서 옷 벗김 당하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티모테오에게 말합니다.

“몸의 단련도 조금은 유익하지만 신심은 모든 면에서 유익합니다.

현재와 미래의 생명을 약속해 주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이들의 구원자이신 살아 계신 하느님께

우리가 희망을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1티모 4,8-10)

오늘의 내 몸이, 내 생각이 내 것인 줄 알았습니다.

주 하느님께서 다 내게 주신 것이고

나는 단지 누리고만 있는 것인 줄 몰랐습니다.

내 모든 것이 다 찢겨지고 지워져 없어지더라도

주님을 향한 내 염원과 찢들지 않은 열정만은

순수하게 남아 주님께 다다랐으면 좋겠습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1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1처 예수님께서서 십자가에 못박히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티모테오에게 말합니다.

“말에서나 행실에서나 사랑에서나 믿음에서나 순결에서나,

믿는 이들의 본보기가 되십시오.

그대 자신과 그대의 가르침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그대는 그대뿐만 아니라

그대의 말을 듣는 이들도 구원할 것입니다.”(1티모 4,12.16)

성덕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성인들은 물론이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사랑하여

주님의 말씀을 새기고 일상에서 이루며

주님 사랑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은

세상에서 반대받는 표적일 수도 있지만

세상을 구원하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밑알입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2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2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티모테오에게 말합니다.

“의지할 데 없이 홀로 된 여자는 하느님께 희망을 걸고

밤낮으로 끊임없이 간구와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자기 욕심대로 사는 과부는

살아 있어도 죽은 몸입니다.”(1티모 5,5-6)

현세의 물질적인 풍요와 안녕은

우리를 살찌우는 행복의 상징처럼 유혹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재물을 늘리기 위해

형제자매를 이용하고 수탈하며
자신의 재물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하여
형제자매를 구분하고 경계하며 담장을 쌓음으로써
스스로 고립되고 원망을 받아
정녕 지옥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봅니다.
현세의 탐욕으로 숨막혀 돌아가시는 주님을 뵙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3처로 가며)

-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 제13처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림을 묵상합니다.**
-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티모테오에게 말합니다.
“사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따라다니다가 믿음에서 멀어져 방황하고
많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로움과 신심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십시오.”(1티모 6,10-11)
돈 때문에 싸우고, 멀어지며, 원수가 되는 세상을 봅니다.
우애보다는 이득을, 사랑의 나눔보다는 이기적 취득을 통해
욕망의 피라미드 속에 갇힌 고독하고 불쌍한 인격을 봅니다.
사람들의 야욕에 숨어서 사람을 조종하는 악마를 바라봅니다.
악마와 손잡고 승리한 듯 기뻐하며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서도 만족해하며
불안한 평화를 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사람들의 탐욕과 야욕에 희생된 예수님의 사체를 바라봅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4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4처 예수님께서서 무덤에 묻히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서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티모테오에게 말합니다.

“믿음을 위하여 훌륭히 싸워 영원한 생명을 차지하십시오.

그대는 많은 증인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하였을 때에

영원한 생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1티모 6,12)

사람들의 탐욕과 야욕으로 희생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실패한 듯, 끝나버린 듯한 사랑의 불씨를 바라봅니다.

다시는 보지 못할 믿음이 시들어짐을 바라봅니다.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희망이 꺼져감을 느낍니다.

악마의 창궐로 세상은 절망과 파멸로 뒤덮입니다.

진리와 선함과 미덕은 짓밟혀 지쳐서 쓰러집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5처 제대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5처 예수님께서서 부활하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서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티모테오에게 말합니다.

“현세에서 부자로 사는 이들에게는 오만해지지 말라고 지시하십시오.

또 안전하지 못한 재물에 희망을 두지 말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시어
그것을 누리게 해 주시는 하느님께 희망을 두라고 지시하십시오.
좋은 일을 하고 선행으로 부유해지고, 아낌없이 베풀고
기꺼이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라고 하십시오.”(1티모 6,17-18)
죽이고 없애서 이긴 줄 알았는데
돈과 권력과 명예가 아무런 거리낌없이
한없이 득세할 줄 알았는데
사라지지 않고 되살아나 새로운 세상을 엽니다.
차지하면 차지할수록 공격받고 고립되지만,
공유하면 공유할수록 함께하게 되고 평화를 얻습니다.
쌓아 두면 썩어나가지만, 나누면 배가 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나눠주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 주님,
성령을 보내주시어, 저희를 주님 사랑 안에 머물게 해주시고
형제들과 함께 하늘나라를 이루어, 평화와 안녕을 누리게 해주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복음을 위한 고난

(2티모 1,8)

- 티모테오 후서의 고난 십자가의 길

✠ 주 예수님,

- ◎ 저희를 위하여 온갖 수난을 겪으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성모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하나이다.
저희에게 죄를 뉘우치고 주님의 수난을 함께 나눌 마음을 주시어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며
성직자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모든 죄인이 회개하도록 은혜를 내려주소서.

(제1처로 가며)

-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처 예수님께서서 사형 선고 받으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티모테오에게 말합니다.

“나는 밤낮으로 기도할 때마다

끊임없이 그대를 생각하면서,

내가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깨끗한 양심으로 섬기는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2티모 1,3)

주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영예가 있다면

주님의 삶을 닮았다는 인정뿐입니다.

그리고 그 인정은 세상에서 버림받고

주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서 버림받고 사형 선고를 받으시는 주님을

부끄럽고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기억합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2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2처 예수님께서서 십자가 지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티모테오에게 말합니다.

“나는 그대의 눈물을 생각하면서

그대를 다시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내가 기쁨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2티모 1,4)

주님을 따르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며,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없는 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희망으로 주님을 바라며,

사랑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3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3처 예수님께서서 기력이 떨어져 넘어지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티모테오에게 말합니다.

“나는 그대 안에 있는 진실한 믿음을 기억합니다.

먼저 그대의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깃들어 있던 그 믿음이,

이제는 그대에게도 깃들어 있다고 확신합니다.”(2티모 1,5)

주님을 따르는 길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요
나 혼자만 걷는 것도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가문의 대를 이어,
그리스도교 전승을 통해 이어져 갑니다.
현세를 지배하는 악마와 악마의 유혹에 호응하여
부정과 불의를 일삼는 이들에게 박해당해
넘어지고 쓰러지면서도 주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오늘 기력이 떨어져 넘어지신 주님은 우리의 위로입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4처로 가며)

-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 제4처 예수님께서서 성모님을 만나심을 묵상합시다.**
-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티모테오에게 말합니다.
“하느님께서서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힘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2티모 1,7)
주님을 따르는 길이 세상에서 입신양명을 못하는 길이 되어도
부모님과 가족에게 불효를 저지르는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이 현세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시지,
현세에서 불의와 부정에 가담하여 멸망하기를 바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타까워하시면서도 대견스럽게 여기시는 어머니를 뵙니다.
자비로운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성모님께 의지하여 청하오니
주님,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5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5처 시몬이 예수님을 도와 십자가 짐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티모테오에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을 위하여 증언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분 때문에 수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느님의 힘에 의지하여

복음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십시오.”(2티모 1,8)

세상이 우리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다고,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이는, 세상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고

그 짓값으로 자신의 생을 희생제물로 바치신

주님 복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6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6처 베로니카, 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림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티모테오에게 말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행실이 아니라

당신의 목적과 은총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히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2티모 1,9)

주님을 따르는 이들이 거룩하고 훌륭해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거룩하게 해주셔서
우리는 성덕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뿐입니다.
베로니카가 수건으로 예수님을 새겼듯이
우리 가슴 속에 예수님을 새기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랑의 십자가 길을 걸어갑시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7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7처 기력이 다하신 예수님께서서 두 번째 넘어지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티모테오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 고난을 겪고 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누구를 믿는지 잘 알고 있으며,

또 내가 맡은 것을 그분께서 그날까지

지켜 주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2티모 1,12)

성공이라는 단어는 더 높아지고 많아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럼 적어지는 것과 낮아지는 것은 실패인가요?

우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고 내어주지 않고

주님의 교회와 어려운 이들을 위해 우리 자신을 봉헌합니다.

세상에서는 적어지고 낮아지고 쓰러져 버려지는 것으로 보이지만

주님 나라에서는 점점 더 커지고 가까워져 보일 것입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8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8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부인들을 위로하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티모테오에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 머무르시는 성령의 도움으로,
그대가 맡은 그 훌륭한 것을 지키십시오.”(2티모 1,14)**

세상은 가난해지고 어려워지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주님을 모시기를 갈망하기에 가난한 마음이 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생명의 말씀을 소중히 지키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실현하여 이 땅에 하늘나라를 이룹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9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9처 예수님께서 세 번째 넘어지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티모테오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은총으로 굳세어지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님의 훌륭한 군사답게

고난에 동참하십시오.”(2티모 2,1.3)

혼자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힘듭니다.

자신의 노력만으로는 주님을 따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키고 이루려고 하는 말씀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만 맡겨진 것이 아니기에
주님께서 함께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어
힘을 북돋아 주시고 이끄시고 밀어주셔서
마침내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믿고 따릅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0처로 가며)

-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 제10처 예수님께서 옷 벗김 당하심을 묵상합시다.**
- ☞ 주님께서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티모테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그분과 함께 살 것이고
우리가 견디어 내면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며
우리가 그분을 모른다고 하면
그분도 우리를 모른다고 하실 것입니다.”(2티모 2,11-12)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무시와 모욕을 기억하십니다.
주님 치부책에 하나하나 다 적어 놓으시고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따라 양보하고 희생한 것을
작은 것은 크게 보아주시고, 모자란 것은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조차 하나도 잃지 않고
다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1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1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티모테오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신과 돈만 사랑하고 허풍을 떨고 오만하며,

남을 중상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며,

감사할 줄 모르고 하느님을 무시하며,

비정하고 매정하며, 남을 험담하고 절제할 줄 모르며,

난폭하고 선을 미워하고, 배신하며, 무모하고 교만하며,

하느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면서,

겉으로는 신심이 있는 체하여도

신심의 힘은 부정할 것입니다.”(2티모 3,2-5)

세상과 우리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우리 삶의 성찰이 이렇게

부끄럽고 후회스럽고 낮 뜨겁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살아갑시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2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2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티모테오에게 말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지혜를 그대에게 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전부 하느님의 영감으로 쓰인 것으로,
가르치고 꾸짖고 바로잡고 의롭게 살도록
교육하는 데에 유익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계속하십시오.”(2티모 3,15-16; 4,2)

우리는 입신양명의 처세술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말이지만 결코 이루지 못할 이상을 꿈꾸는 것이 아닙니다.

미신같이 허황되고 허망한 감언이설을 기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땅히 이루어져야만 하는 이데올로기를 신봉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약하고 부족한 인간 조건을 가지고서도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시어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실현하여

우리 구원의 새 생명을 얻고, 구원의 하늘나라를 이루고자 합니다.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3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3처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림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티모테오에게 말합니다.

“나는 훌륭히 싸웠고 달릴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의로움의 화관이 나를 위하여 마련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심판관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입니다.

나만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타나시기를

애타게 기다린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2티모 4,7-8)

누가 알아주는 이도 없고, 박수쳐주는 사람도 없건만

주님을 따르는 길을 바라보는 분이 계십니다.
주 하느님과 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시고
복음을 전하고 이루고자 하는 노력을 눈여겨보시며
세상이 보기에는 저절로 열매 맺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악과 악에 휘둘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우리 몸으로 채우며 이루는 복음 사업을
방해하고 저지하며 방해하여 당하게 되는
그 환난과 박해를 안타깝고 애절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그 희생을 믿거름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싹트게 하십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4처로 가며)

-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 제14처 예수님께서서 무덤에 묻히심을 묵상합시다.**
-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티모테오에게 말합니다.
“주님께서서는 내 곁에 계시면서
나를 굳세게 해 주셨습니다.
나를 통하여 복음 선포가 완수되고
모든 민족들이 그것을 듣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2티모 4,17)
우리는 무덤에 갇혀서, 신비 속에 숨겨져 있어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경배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성공으로 평가되든 실패로 평가되든
현실적으로 눈앞에 드러나는 결과가 어떻든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이룩해야 하는 우리의 할 바를 다 하고
주님께서 열매 맺어 주시기를 겸손되이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 한가운데에 현존하시고 몸소 활동하시는
주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기를 간구합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5처 제대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5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티모테오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폐지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불멸을 환히 보여 주셨습니다.”(2티모 1,10)

죽음의 힘으로 예수님을 가두어 둘 수 없었던 악마는

주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빛을 가릴 수 없었고,

마침내 주 하느님께서서는 아들 예수님 희생의 공로로

선조들과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죄악의 굴레에서 건져주시며,

아들 예수님께 새 생명을 다시 안겨 주시어 부활케 하시고

우리의 주님으로 삼으시어 아버지 오른쪽에 앉게 하시고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우리가 주님을 다시 뵈고

끊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희망과 사랑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게 하셨음에 감사와 찬미를 올려드립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느님의 은총

(티토 2,11)

- 티토서의 은총 십자가의 길

✠ 주 예수님,

- ◎ 저희를 위하여 온갖 수난을 겪으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성모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하나이다.
저희에게 죄를 뉘우치고 주님의 수난을 함께 나눌 마음을 주시어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며
성직자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모든 죄인이 회개하도록 은혜를 내려주소서.

(제1처로 가며)

-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처 예수님께서서 사형 선고 받으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티토에게 말합니다.

**“나 바오로는 하느님의 종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티토 1,1)

우리는 주 예수님의 사도들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면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그분의 부르심을 받아
주님의 자녀로 세례를 받고 제자가 되었고,
주 대전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받아
온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실현하는
사도의 본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주님을 외면하고 배반하며 주님을 아프게 합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2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2처 예수님께서서 십자가 지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티토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것은
하느님께 선택된 이들의 믿음을 돕고
신앙에 따른 진리를 깨우쳐 주기 위한 것으로,
영원한 생명의 희망에 근거합니다.”(티토 1,1-2)

우리는 주 예수님께서서 내려주신 사명을 받아서
나와 함께 사는 이들과 함께하는 이들에게
우리를 살리기 위해 몸소 희생제물이 되시고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을 전합니다.

내가 받은 사명 때문에,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성경이나 영성 서적에 적혀 있는

좋은 말씀을 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내가 살면서 내 맘속 깊이 체험한

내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예수님을 기꺼이 전합니다.

주 예수님과 함께 오늘 십자가의 길을 걷습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3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3처 예수님께서서 기력이 떨어져 넘어지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티토에게 말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제 때에 복음 선포를 통하여
당신의 말씀을 드러내셨습니다.**

**나는 우리 구원자이신 하느님의 명령에 따라
이 선포의 임무를 맡았습니다.”(티토 1,3)**

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현할 도전을 받을 때마다 기꺼이 실현하지만

가끔 왠지 모르게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을 때마다

우리는 주 예수님을 지치게 하고 허망하게 합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4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4처 예수님께서서 성모님을 만나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티토에게 말합니다.

“나이 많은 여자들도 마찬가지로

몸가짐에 기쁨이 있어야 하고,

남을 험담하지 않고, 술의 노예가 되지 않으며,

선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티토 2,3)

어머니로서의 우리는 모든 것을 참고, 덮어주고, 감싸 안아주는데

여자로서의 우리는 왜 그렇게 불만이 많고, 원망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내 자식뿐만 아니라 교회와 동네와 사회에서도 어머니이게 하소서.

자애로운 정으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성모님을 통하여 간구하오니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는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5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5처 시몬이 예수님을 도와 십자가 짐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티토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대는 건전한 가르침에

부합하는 말을 하십시오.

나이 많은 남자들은 절제할 줄 알고

기품이 있고 신중하며,

건실한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지녀야 합니다.”(티토 2,1-2)

제가 사회 속의 한 구성원으로만 살게 하지 마시고

자식과 가정을 책임진 아버지로 살게 하소서.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자식처럼 보호하며

이끌고 함께하고 밀면서

참고 기다리며 가능성을 존중하며 기대하면서

주님 사랑을 품은 아버지이게 하소서.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6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6처 베로니카, 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림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티토에게 말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훈련시켜,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고 순결하며, 집안 살림을 잘하고

어질고 남편에게 순종하게 하여,

하느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티토 2,4-5)

성녀 베로니카는 수건으로 예수님을 닦았습니다.

마음으로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가슴 가득히 깊숙이 품어 안아

나와 함께하는 가족과 모든 이들을 보듬게 하소서.

그리하여 나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소서.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7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7처 기력이 다하신 예수님께서서 두 번째 넘어지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티토에게 말합니다.

“하느님을 믿게 된 이들이 선행을 하는 데에

전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행은 사람들에게 좋고 유익한 것입니다.”(티토 3,8)

사랑은 혀끝으로 내뿜는 말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악은 자선으로 어느 정도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주신 은총과 축복은

나누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배로 늘어나며

나날 때마다 부풀어 올라 기적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너와 나를 우리로 만들어 줍니다.
나를 바라보고 내일을 걱정하며 나만을 위해 가뉘 둠으로써
주님 은총과 축복을 썩게 하고,
주님의 사랑을 수포가 되게 하여
무용지물이 되지 않게 하소서.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8처로 가며)

-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 제8처 예수님께서서 예루살렘 부인들을 위로하심을 묵상합시다.**
-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티토에게 말합니다.
“우리 신자들도 선행에 전념하는 것을 배워,
남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들을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티토 3,14)
윗사람이나 내 삶에 필요하고 도움이 될만한 사람에게는
조금도 아쉬워하지 않으며 선물을 드리면서도
내가 데리고 있는 사람들이나 도와주어야 할 사람들에게는
아깝고 인색하며, 도가 넘칠까 봐 찝끔찝끔 나눠줍니다.
내가 베푼 것보다 더 기대하며
내가 나눈 것보다 더 생색을 내며
교만과 마음의 사치를 부리며 예수님을 슬프게 합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9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9처 예수님께서 세 번째 넘어지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티토에게 말합니다.

“그대 자신을 모든 면에서 선행의 본보기로 보여 주십시오.

가르칠 때에는 고결하고 품위 있게 하고

트집 잡을 데가 없는 건전한 말을 하여,

적대자가 우리를 걸고 나쁘게 말할 것이

하나도 없어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하십시오.”(티토 2,7-8)

예수님은 나를 통해 현세에서 현존하시고 활동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은 내 혀끝에서 나오는 말로 전해질 수 있는데

예수님은 내 손과 발을 통해 사랑을 전할 수 있는데

저의 부주의하고 감정에 휩쓸린 무분별한 행동으로

예수님 복음 말씀을 빛바래게 하고

예수님의 복음 사업에 누를 끼치며

예수님을 부끄럽게 만든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0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0처 예수님께서 옷 벗김 당하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티토에게 말합니다.

“과연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느님의 은총이 나타났습니다.”(티토 2,11)

우리는 살면서 입고 있는 옷과 먹고 있는 음식
그리고 살고 있는 집으로
주렁주렁 치렁치렁 휘두르고 늘어뜨리며
무엇이 그토록 부끄럽고 자신이 없는지
내 민낯과 내 참 인격을 사실 그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감춰두고 삽니다.
주님 제 죄악을 못 본 체해주시고
저를 주님 사랑으로 채워주소서.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1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1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티토에게 말합니다.

“이 은총이 우리를 교육하여,

불경함과 속된 욕망을 버리고

현세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도록 해 줍니다.”(티토 2,12)

주님께서 십자가상에 실제로 못박히심은

그럴싸한 추상적인 말이나 화폭으로도 표현할 수 없고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사실 그대로의

우리 구원을 위한 희생제물입니다.

사람을 무엇보다 누구보다도 끔찍이도 사랑하시기에

주 하느님의 생명을 몸소 바쳐 구원하시는 희생제사임을 고백합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2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2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티토에게 말합니다.

“복된 희망이 이루어지기를,

우리의 위대하신 하느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해 줍니다.”(티토 2,13)

예수님은 거룩하고 권위 있는 말씀을 주실 때보다

배고픈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여 주실 때보다

환우들을 병에서 건져주시고 죽음에서 소생시키실 때보다

주님 말씀과 행적이 참 진리임을 증명이라도 해주시려는 듯이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주님 몸소 십자가상에서

주님 생명을 나눠주시는 그 순간이

더욱더 거룩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때 비로소 주님의 참 사랑이 드러나고

아버지 하느님과 함께하시던 그 영광이 빛납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3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3처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림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티토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내어 주시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해방하시고 또 깨끗하게 하시어,

선행에 열성을 기울이는 당신 소유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티토 2,14)

주님을 십자가에서 받아 내리며 우울하고 처절한 심정입니다.

뭔가 될 것 같고, 곧 이를 것만 같았는데

허무하고 허망하게 십자가상 죽음으로 끝난 것만 같았습니다.

안타깝고 억울하며, 하늘이 원망스럽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꿈꾸고 기대하는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탐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루어질 수 있고 또 마땅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여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 이기적인 이해관계가

이를 방해하고 무너뜨렸습니다.

진리가 무너지는 순간은 악의 승리처럼 보입니다.

선은 악과 악에 호응하고 악과 손잡은 사람들에 의해 무너집니다.

인간 실종과 인격 상실의 현장에서 스러져간 주님 용서하소서.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4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4처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티토에게 말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당신 자비에 따라,

성령을 통하여 거듭나고 새로워지도록
물로 씻어 구원하신 것입니다.”(티토 3,5)
주님의 사체를 십자가에서 내려 무덤에 묻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내 맘속 깊이 모십니다.
내 가슴 속 깊은 곳에 감춰져 있는 우리의 죄악에,
주님께서 임하셔서, 주님 생명의 빛으로
죽을 위험에 처해있는 우리 죄를 씻어 주시고 구하심에
멈출 수 없는 눈물로 회개의 인사를 드립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5처 제대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5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티토에게 말합니다.
“이 성령을 하느님께서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분의 은총으로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희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었습니다.”(티토 3,6)
주님께서 우리 죄를 씻어 주시고
새 생명의 빛으로 되살려주셨기에
우리는 회개의 눈물로 주님께 다닙니다.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신 주님
저희를 주님의 사도로 만들어 주시고
주님 사랑의 빛을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펼치소서.
우리를 주님 사랑과 구원의 도구로 써주소서.
부활하신 주님,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사랑하는 형제

(필레 1,16)

- 필레몬서의 형제 십자가의 길

✠ 주 예수님,

- ◎ 저희를 위하여 온갖 수난을 겪으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성모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하나이다.
저희에게 죄를 뉘우치고 주님의 수난을 함께 나눌 마음을 주시어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며
성직자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모든 죄인이 회개하도록 은혜를 내려주소서.

(제1처로 가며)

-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처 예수님께서서 사형 선고 받으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필레몬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수인이 된 나 바오로와
우리 형제 티모테오가 사랑하는 우리의 협력자 필레몬에게,
그리고 아피아 자매와 우리의 전우 아르키포스,
또 그대의 집에 모이는 교회에 인사합니다.”(필레 1,1-2)

한때 그리스도교는 집에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

가정을 단위로 하여 함께 모이는 신앙 공동체로서,

또 “이 집 저 집에서 빵을 떼어 나누”(사도 2,46)는

사도들의 전승에 따라서

세상에서 버림받고 꺼려지는 그리스도교는

당대 사회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이들이었습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2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2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필레몬에게 말합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그대를 기억하며

늘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님과 모든 성도를 향한 그대의 사랑과 믿음을

내가 전해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필레 1,4)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감사를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그에게 사랑을 나누고 베풀었다는 것을 의미하겠지요.

누군가를 위해 청원과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전에

누군가가 나를 위해 청원과 감사의 기도를 올리기 전에

죄인인 우리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주님 십자가 길의 첫걸음을 기억합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3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3처 예수님께서 기력이 떨어져 넘어지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필레몬에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 있으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 이끌어 주는 모든 선을 깨달아,

그대가 더욱 활발히 믿음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필레 1,6)

세상 모든 것은 우리가 창조주의 위대하심과 경이로우심을 찬양하도록 탄성을 자아내게 합니다.

지금 우리가 흑하고 빠져 있는

세상 좋은 것들이 다 모여 주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쳐 헌신하시다가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는 우리를 기다리다 지쳐 버리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4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4처 예수님께서 성모님을 만나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필레몬에게 말합니다.

“형제여, 나는 그대의 사랑으로

큰 기쁨과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대 덕분에 성도들이 마음에

생기를 얻었기 때문입니다.”(필레 1,7)

우리 생애에 있어, 어머니만 한 우리의 우군은 없습니다.

예수님께 있어서도 성모님만 한 우군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믿어주고 지지해주고 따라주시던 분

그 성모님께서 십자가의 길에서 예수님을 안아주십니다.

사도 성 바오로는 유년기의 신앙 공동체를 이끌고 보듬어 안은

필레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격려합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5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5처 시몬이 예수님을 도와 십자가 짐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필레몬에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큰 확신을 가지고
그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명령할 수도 있지만,
사랑 때문에 오히려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필레 1,8)

예수님은 누구에게도 빛을 질 필요가 없으시고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분을 도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 현존하시고 활동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기꺼이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 맡깁시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6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6처 베로니카, 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림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필레몬에게 말합니다.

“내가 옥중에서 얻은 내 아들 오네시모스의 일로
그대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대에게도 나에게도

쓸모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필레 1,10-11)

함께 주님의 일을 하는 형제자매들에게서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우애와 동지애, 협력자애 등의 사도적 동질감과 연대를 느낍니다.

알면 알수록 함께하면 할수록

주님께서 안배해 주신 동료와 협조자들이

얼마나 귀한 선물이고 주님 사업의 일꾼인지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 사도적 동료들과 협력자들을 봉헌하고 맡겨 드립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7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7처 기력이 다하신 예수님께서 두 번째 넘어지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필레몬에게 말합니다.

“나는 내 심장과 같은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를 내 곁에 두어, 복음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그대 대신에 나를 시종들게 할 생각도 있었지만.”(필레 1,12-13)

주님께서 복음 사업에 함께하라고 보내주신 선물이기에

동료들과 협조자들을 주님께 다시 맡겨 드립니다.

이 자리, 이 시간, 이 복음 사업에 함께한 이들이었기에

이 자리, 이 시간, 이 복음 사업이 지난 다음에는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느끼는 모든 열정과 방식을 뒤로한 채

주님의 섭리와 안배에 맡겨 드립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8처로 가며)

-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8처 예수님께서서 예루살렘 부인들을 위로하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필레몬에게 말합니다.

“그대의 승낙 없이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대의 선행이 강요가 아니라

자의로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필레 1,14)

나와 잘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와 함께 일하면, 손발이 맞아서 일이 수월하게 진행되어
여러모로 편하고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안타까움과 연민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 복음 사업에 헌신하고자 하는

자발적인 원의와 동의로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며

스스로의 결단과 열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되새깁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9처로 가며)

-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9처 예수님께서서 세 번째 넘어지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필레몬에게 말합니다.

“그가 잠시 그대에게서 떨어져 있었던 것은 아마도

그를 영원히 돌려받기 위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필레 1,15)

우리가 지금은 비록 직책상, 조건상, 상황상

위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책임자요 협력자로 구분되지만,

나와 함께 주님의 복음 사업을 진행하는 이들은

내 사람도 아니요, 내 것도 아니며,

우리는 모두 주님의 형제자매들이고 주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주님 복음 사업의 도구입니다.

세 번씩이나 넘어지시며 힘겨워하는 주님 수난의 십자가의 길에

땀이라도 닦아드릴 수 있는 협력자이며 동료이길 기대하며

주님께 우리와 함께하는 형제자매들을 봉헌하나이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0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0처 예수님께서 옷 벗김 당하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필레몬에게 말합니다.

“이제 그대는 그를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하는 형제로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나에게 특별히 사랑받는 형제라면,

그대에게는 인간적으로 보나

주님 안에서 보나 더욱 그렇지 않습니까?”(필레 1,16)

우리를 “종이 아니라, 친구”(요한 15,15)라고 불러주시고

주님의 모든 것을 일러주고 함께 일하자고 하셨으니
우리는 모두 주 하느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주 예수님을 만형이요, 주님으로 모시는
다 같이 평등하고 열성적인 협력자들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물밀듯이 닦쳐옴을
온몸 가득히 날날이 보고 느끼게 되었사오니
밝게 비춰오는 주님 생명의 빛을 받아
주님 복음 사업의 충실한 종이 되게 하소서.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1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1처 예수님께서서 십자가에 못박히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필레몬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대가 나를 동지로 여긴다면,

나를 맞아들이듯이 그를 맞아들여 주십시오.”(필레 1,17)

사람의 자유를 인정하시고 존중하셔서

사람들이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는 것조차

인정하고 존중하며 받아들여 주신 주님.

주님의 무한하고 무조건적이며 아낌없는 사랑에

의아하고 송구스럽게 경탄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자유와 전권을 내어 맡겨주시는 주님,

찬미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2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2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필레몬에게 말합니다.

“그가 그대에게 손실을 입혔거나 빛을 진 것이 있거든
내 앞으로 계산하십시오.

그렇다고 나에게 빛을 진 덕분에 지금의 그대가 있다는 사실을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필레 1,18-19)

우리는 주님께 빛을 지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어 세상에 내보내 주셨건만,
우리는 죄로 물들어 퇴색하고 사그라들어 가는 생명이 되었나이다.

그런 우리를 더욱더 내치고 벌을 주셔도 그만인 것을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주님 생명을 다시 또 내어주시니,
진정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며, 주 하느님이시옵니다.

우리의 빛을 주님의 영광으로 돌려드리게 하소서.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3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3처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림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필레몬에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형제여! 나는 주님 안에서

그대의 덕을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이

생기를 얻게 해 주십시오.”(필레 1,20)

십자가에서 주님의 사체를 내려안으며

우리 죄악의 결과로 빚어진 패악을 바라봅니다.

우리 죄악의 대가로 희생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덕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으니 감사드림에 마땅하건만

그 덕이 우리 죄악의 대가로 희생되심이니

주님의 돌아가심으로만 씻어질 정도로 죽을 죄를 지은

저희에게 기워 갚을 기회를 허락하소서.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4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4처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필레몬에게 말합니다.

“나는 그대의 순종을 확신하며 이 글을 씁니다.

내가 말하는 것 이상으로

그대가 해 주리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필레 1,21)

세상을 살면서 겪어온 그동안의 온갖 아픔과 감정들을

‘묻어두라’라는 말을 들어왔고 또 들려주었습니다.

그렇게 묻어두며 인내와 용서와 자비를 수행해왔습니다.

그러나 묻어두는 것이 잘했다고 인정하거나 용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묻어둔다고 잊히는 것도, 없어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표면에 드러나지 않고 숨겨져 있기만 한 것을

주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역사에 깊이 들어오셔서 씻어 주시고

우리를 해방해주시고 건져주시며 되살려주십시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5처 제대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5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필레몬에게 말합니다.

“아울러 나를 위하여 손님방을 하나 마련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은총이 내려

내가 여러분에게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필레 1,22)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

아버지 하느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받아 부활하셨으니

찬미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

주님께서 죄악에 물들어 허물어진 저를 씻어 주시고 새로 지으셨으니

부디 모실 자격조차 없는 제게 임하시어 머무르시옵소서.

저도 회개의 첫걸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주님 품에 안겨, 주님 사랑 안에 머물고 싶나이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구하시어

주님 사랑의 도구로 써주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